

억대 연봉자 광주 8756명·전남 9117명

한전 등 혁신도시 이주 효과...광주 217명·전남 1701명 증가 전국 52만6689명 전체 근로자의 3.2%...금융·보험업 최다

한전 등 공공기관 16개가 이주한 빛가람혁신도시 효과로 광주·전남의 억대 연봉자가 늘었다. 또 전국 근로자 중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100명 중 3명꼴이었고, '억'소리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국정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억대 연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의 총급여가 연 1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8756명이었다.

광주는 전체 근로자 35만25명 중 2.5%가 억대 연봉자였다. 광주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억대 연봉자가 217명이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억대 연봉자가 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는 9117명이 억대 연봉을 받아 전체 42만 8775명 중 2.1%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비해 1701명이 증가했다.

자료를 분석한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혁신도시 이주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억대 연봉자는 52만6689명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1668만7079명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광역시·도별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근로자 38만7142명 중 3만2728명(8.5%)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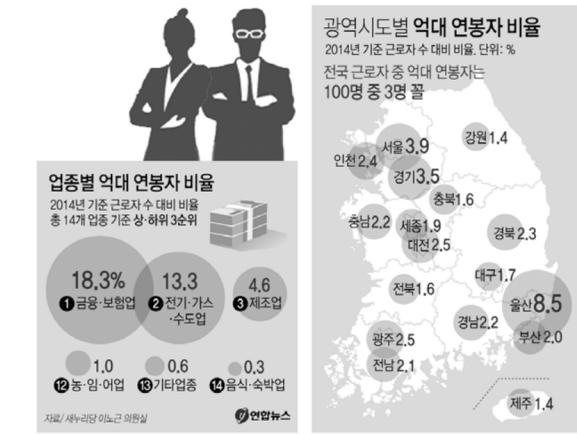
울산은 2013년 연말정산 결과에서도 억대 연봉자 비율이 6.9%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그보다도 1.6%포인트 증가했다.

2위 서울은 근로자 578만3610명 중 3.9%인 22만7600명이 억대 연봉자다. 서울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13년과 같았다.

3위는 경기(3.5%), 4위는 광주(2.5%), 5위는 대전(2.5%)으로 파악됐다.

대구(1.7%)와 충북(1.6%), 전북(1.6%), 강원(1.4%), 제주(1.4%)는 억대 연봉자가 적은 편이었다.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총 급여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제일 많은 업종은 금융·보



협업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계 근로자 49만7569명 중 18.3%(9만936명)가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가스·수도업(13.3%), 제조업(4.6%), 광업(4.6%), 보건업(3.2%) 등 순이었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0.3%에 불과해 농업·임업·어업(1%)보다 낮았다.

억대 연봉자 중에는 외국인도 8천686명 포함됐다. 전체 국내 외국인 근로자 47만 9527명의 1.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도 138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억대 연봉자 수는 담보 상태로 경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5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6년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했다. <농협 전남본부>

전남농협 비이자이익 증대 총력 결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5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농축협 신용상무와 지점장 등 21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했다.

전남농협은 올해를 '상호금융 손익구조 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 농축협의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비이자이익은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지난해 말 지역 농축협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4.9%로 시중은행 평균(17.9%)보다 3%포인트 낮다. 또 보험·카드·전자금융 등

전통적인 수수료 비중이 94.7%를 차지해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농협은 농축협에서 외국환 취급 및 핀테크사업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2016년 말 20%, 2017년말 27%, 2018년 말 34%, 2019년 말 40%로 끌어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2016년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이자이익 증대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표통장 제로화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상의 한·중 FTA 특화 사업 확대

컨설팅·박람회 참가 기회 등

광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5일 한·중 FTA 특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소한 광주 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기업의 FTA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과 통·번역 지원, 원산지확인서 제3차 확인, FTA 종합 실무교육, FTA 일반·전문 상담,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증명 발급 등 10개 분야 3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중국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 컨설팅, FTA 특화 과정, 중국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FTA 특화사업을 확대한다.

광주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해 72차례 교육과 설명회,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통·번역 지원, 702건의 FTA 전문상담 등을 실시했다.

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FTA 특화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수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18.57 (+6.04)
- ↓ 금리 (국고채 3년) 1.46% (-0.01)
- ↑ 코스닥 646.27 (+2.29)
- ↑ 환율 (USD) 1238.80원 (+4.40)



광주은행 계좌이동 고객 경품 이벤트

5월까지...유럽여행 상품권 등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6일부터 시행하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에 맞춰 광주은행으로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이 SolSol~ 행복도 SolSol~'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를 광주은행계좌로 변경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광주은행은 추천

을 통해 1등 1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유럽여행상품권을 제공하며, 1백만원 여행상품권(1명), 로봇청소기(3명), 백화점상품권(10명) 등 총 365명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이벤트 기간은 26일부터 5월말까지이며, 당첨고객은 오는 6월 중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및 각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혁신도시내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A4 블록 단지 814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건기)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A4 블록 단지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입주 예정이며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29~46㎡로 전체 814가구 규모이다.

29㎡ 240가구, 36㎡ 342가구, 46㎡ 232가구로 이뤄지며 단지 내 상가,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이 조성된다. 임대조건은 공급형별로 전용면적 29㎡가 보증금 791만원 월임대료 11만 5000원이다. 전용면적 36㎡는 보증금 965만원 월임대료 15만원, 46㎡는 보증금 1800만원 월임대료 21만원이다. 시중 전세 시세의 65~8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자산보유 기준(월평균 소득 4인 가구 기준 365만7250원 이하·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자동차 2465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주택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8~10일이며 적격자에 한해 LH 광주전남본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A4블록 단지는 호남고속도로, KTX 나주역, 광주 승정역, 광주공항, 무안공항까지 25분 이내 도달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빛가람초·빛가람중·봉황고·전남 과학고·외국어고와 나주호관광단지 연계 골프장, 지적강 유원지, 영산강 수변공원 등이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